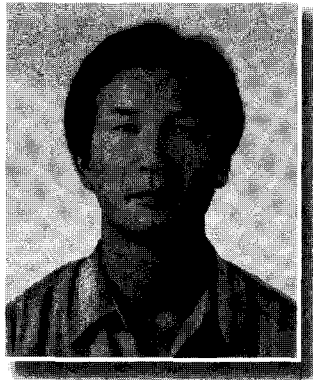


## 한국양록사업단 출범과 과제



김은성 대표이사  
(주)한국양록사업단

1년여의 산고(産苦) 끝에 한국양록사업단이 탄생됐다. 전업 양록인들이 주주로 참여, 주식회사로 설립된 한국양록사업단은 앞으로 녹용, 녹육 등 생산물 수매·가공·판매 사업에서부터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료·기자재·약품·종자 등의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된다.

한국양록사업단의 출범은 그간 협회가 재정마련 및 회원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오던 알선사업을 합법적으로 확대시키게 됐다는 측면과 함께 양록인들이 주축이 된 양록생산물 판매기구가 등장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양록산업화에 맞추어 양록산물 가공 및 판매부분을 책임져줄 것으로 기대해 온 한국양록축협이 극심한 재정적자로 전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록사업단에 대한 양록인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침체된 양록 경기와 이에따른 농가의욕 감소, 농가재정 악화, 개인기업으로 전락해 설립취지를 상실한 보람농산의 전례 등 부정적 여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록인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양록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본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출범과정과 의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 한국양록사업단은 왜 필요한가?

양록사업단 설립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양록협회에서 수년간 시행해온 알선사업의 정상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협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운영재정을 회원농가의 회비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년전부터 조사료 및 약품, 일부 기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재정에 활용해 왔다. 이같은 공동구매 사업은 사실 비영리 법인인 협회의 고유업무와는 거리가 있으나 대부분의 생산자 단체가 부족한 재정을 공동구매 사업 수수료로 보충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어 양록협회도 수년째 이를 유지해 온 것이다.

한편, 조사료·약품 및 기자재 등의 공동구매 사업은 재정마련의 측면과 함께 회원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어 농가의 협회참여에도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늘 비영리 법인의 특성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고 이 업무로 인해 협회 고유업무를 방해받는 현상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조사료의 경우 일정하지 못한 품질과 공급시기 지연 등으로 협회 자체가 불신을 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공동구매 사업의 양성화 수단으로 사업단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양록사업단 설립의 또다른 주요 배경은 생산자단체 주도 생산물 판매사업 필요성이다.

산업화 및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모든 농축산 분야가 그렇듯 양록산물의 수매·가공·유통·판매·홍보 등을 생산자 단체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물론 한국양록축협이라는 전문조직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안타깝게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록협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2년간 협회가 시행한 녹용수매 사

업을 보다 확대, 판매체계까지 확보하고 나아가 녹육가공 및 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록사업단과 같은 기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 □ 양록사업단 현황

한국양록사업단은 양록협회 정관 제 4조 사업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회 자회사이다. 이에 따라 모든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협회에서 수행하고 일부사업은 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다. 또 사업수익의 40%를 협회 운영보조금으로 출연토록 정관에 명시해 놓고 있다.

이처럼 양록사업단이 생산자 단체의 자회사로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기존 협회 공동구매 사업을 승계하고, 둘째, 협회 회원 농가가 대부분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셋째, 생산물의 수매·가공·판매사업에 있어 제반 행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고, 넷째, 소비자들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다.

지난 3월30일 창립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하고 현재 법인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약 70여 양록인이 주주참여를 희망, 4천여만원의 출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증자를 통해 약 2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

1. 녹용사업: 양록사업단의 가장 주된 사업 분야로서 농가에서 생산된 녹용을 수매, 건조 또는 생녹용 상태로 절단포장하여 소

## 집중조명

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녹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고품질 녹용생산에 따른 차별화 기반 마련에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사업단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 고품질 녹용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용의 판매체계 안정구축을 위해 금년도 사업자로 확정된 한국농수산물전문 케이블 방송과 협의, 국산녹용 판매계약을 성사시킬 계획이며 기존 흡수공사 및 위성방송, 통신판매 업체와의 접촉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영업전담 부서를 운영하여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녹용 사은품 선택을 유도하고 한의업계 및 약사들을 상대로 녹용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같은 토대가 마련되면 양록사업단 참

여농가 생산녹용을 중심으로 수매를 시작하게 된다. 수매된 녹용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위생적으로 절단, 포장, 또는 건조하여 협회의 품질보증하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양록사업단은 금년도에 우선 10만냥 정도의 녹용수매 사업은 목표로 하고 있다.

2. 녹용사업: 녹용은 현재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상품화되고 있으나 양록업이 진정한 축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시장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양록사업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녹용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추진하게 되는데, 첫째는 녹용캔을 비롯해 육포 등 대중성 있는 가공품을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개발, 시판하고 다양한 사슴요리법을 개발하여 시식회 및 강습회를 통해 대중화를 유도하며 사슴요리 전문점 체인화 사

## 김은성 대표이사 창립총회 인사말

양록인 여러분, 그리고 한국양록사업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양록업은 지금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슴거래가 얼어붙었고 녹용값도 생산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양록업을 괴롭혀 온 구제역은 지금도 불안한 상태이며, 한국시장을 잠식

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뉴질랜드 양록업계가 올해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압력과 로비를 펼칠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양록업은 외래성 질병과 국내경기 침체,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둘러싸인 시면초가(四面楚歌)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동양의학과 그 중심에 자리잡아온 녹용을

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둘째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 사슴전용 도축장 건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녹육정육을 식육점 및 대형판매점에서 부위별 포장육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 등을 위한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3. 기타사업: 양육사업단 설립의 직접요인이 됐던 조사료 및 마취약품 공급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가게 된다.

조사료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내산 조사료 개발을 목표로 하되 부득이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품목들은 가급적 직수입 체계를 갖추어 품질개선 및 안정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선은 기존 수입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조사료 안

정공급 기반 마련을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마취제 사업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 안전성과 약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농장위생 등에 필요한 약품들도 사업단을 통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계획이다.

기자재 및 배합사료 사업 등도 양육사업단 본래의 핵심사업은 아니나 양육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공급체계가 불안정한 품목들을 찾아내어 대 농가 서비스 차원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 양육농가의 참여

한국양육사업단은 최소한의 설립요건만을 갖춘 채 출범했다. 따라서 사업추진 체

생산하고 있는 양육업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시장과 갈수록 더해가는 녹용의 신비스런 효능, 환경친화적이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는 축산현실을 볼 때 양육업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산업도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한국양육협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양육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및 기자재 공급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특히 조사료 등 알선사업은 취약한 협회 재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인 협회의 특성상 알선사

업은 늘 불안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협회 고유의 회무수행 차질은 물론 업체간, 단체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적 요인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농가경영에 필요한 사료 및 약품·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또한 녹용수매·판매 및 녹육산업 활성화를 우리의 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인 한국양육사업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인 여러분, 그리고 양육사업단 참여주주 여러분, 오늘 구성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최소한 참여주주가 생산한

계 및 사업자금 마련 등 모든 부분에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단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공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양록농가가 주인인 최대 양록사업기구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부분의 농가가 과거 실패했던 사례와 양록조합의 실태를 들어 사업단 참여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양록사업단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한단계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양록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한국양록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양록사업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업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참여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특히 최저 1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로 출자한도를 제한해 특정인들의 운영간섭을 배제하고, 전체가 소주주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짐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녹용으로 출자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 사업단의 취지를 알려 사업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을 유도해 나가며, 양록축협 등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한국양록사업단의 성패여부는 양록농가의 관심과 참여로써 결정되어질 것이다. **민국양록**

녹용의 판매, 나아가서는 우리 협회 회원농가에서 생산된 녹용만큼은 전량 수매·판매가 가능하도록 녹용사업에 집중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녹용을 생산해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수산전문 케이불방송 및 기존 홈쇼핑사, 통신판매업체 및 대형 유통점 등을 상대로 판매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건이 된다면 직판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양록사업단은 녹용 정육생산 및 대중판매, 가공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 농가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그리고 사업단에는 핵심 사업

품목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를 갖추고, 미취제 또한 안전성 및 약효성을 갖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직수입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소모품들도 이왕이면 양록인이 주체인 사업단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록사업단 출범은 한국양록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1만여 양록인 모두의 관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